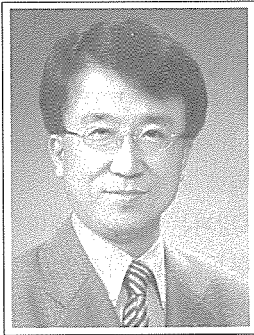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및 ENC 2005 대회

장 호 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협력실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가 2005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경위 및 현황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파리 근교인 베르사이유에서 개최된 유럽 원자력국제대회(ENC 2005)와 연계하여 열린 이번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2004년 4월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공

동 주최로 개최되었던 제19회 한국 원자력연차대회와 연계하여 처음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이전 1995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한국과 프랑스 산업계간 세미나가 불규칙하게 몇 번 한국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이후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 동안 우리 한국 원자력산업계는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대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유럽과의 원자력 협력과 교류 증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방국진 한국원산 상근부회장과 필자는 2003년 9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원자력협회(WNA) 연차대회에 참여하여 유럽의 여러 원자력산업회의측 인사들을 만나 상호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

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교섭을 거쳐 영국과 프랑스가 이러한 상대국으로서 가장 적합한 국가로 결론짓고 영국과 프랑스 원자력 산업회의를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원자력산업계가 한국 원자력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와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학술 및 산업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제1회 한·불 원자력산업세미나가 2004년 4월 서울에서 한국원자력연차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고, 제2회 세미나를 유럽 원자력국제대회(ENC 2005)와 연계하여 프랑스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ENC 2005대회에는 국내에서 총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에는 국내에서는 주최 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방국진 상근부회장을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두산중공업(주), 대한전기협회 등 8개 기관에서 총 22명이 참가하였고 한국과 프랑스 양측에서 기조 강연과 함께 각각 6개 분야에서 기술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10개 기관에서 31명이 참가하였으며 동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에는 국내에서는 주최 기관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방국진 상근부회장을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두산중공업(주), 대한전기협회 등 8개 기관에서 총 22명이 참가하였고 한국과 프랑스 양측에서 기조 강연과 함께 각각 6개 분야에서 기술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12월 16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프랑스원자력청(CEA)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하루 전날인 12월 15일에는 ENC 2005대회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2개 코스의 산업 시찰이 있었다.

산업 시찰 제1코스는 2개 시설 방문 코스였는데, 한 곳은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플라망빌(Flamanville) 원자력발전소 내에 건설 중인 「유럽신형경수로(EPR)」 건설 부지였으며, 또한 곳은 AREVA 그룹 자회사인 코제마(Cogema)가 운영하는 라하그(La Hague) 핵연료 재처리시설이었는데, 한국 참가자 대부분은 제1코스에 참가하였다.

산업 시찰 제2코스는 프랑스원자력청(CEA)의 「사클레이(Saclay)」 연구소로서 한국 측에서는 두산중공업 참가자 4명중 2명만이 참가하였다 (나머지 2명은 1코스에 참가).

두산중공업에서는 이례적으로 창원 본사에 재직 중인 신입사원 4명이 참가하였는데 신입사원들에게 해외 시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세계 원자력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회사의 깊은 배려를 알 수 있었다.

제1코스 산업 시찰은 시찰지가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파리시내 국철역인 성 라자레(Paris Saint Lazare)역에서 아침 6시 50분까지 집합하여 ENC 2005대회 사무국인 유럽원자력학회(ENS)측 직원(Monique Cournas 라는 이름의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였으나 말은 바 일에 대한 정열이 대단하였음)으로부터 출석 체크와 기차표를 받고 7시 10분에 출발하여 3시간여를 달려 10시 20분경에 중착역인 노르망디(Normandie) 지역의 셸부르(Cherbourg) 역에 도착하였다.

노르망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본토로 진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사상 최대 해안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곳이며, 셸부르는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인 까뜨린느 드뇌브(Chatherine Deneuve)가 주연하였던 「셸부르의 우산(Les Parapluies de Cherbourg)」으로 유명해진 항구도시이다.

여기서 다시 준비된 버스로 20여분을 이동하여 노르망디 해안 근처의 플라망빌 원자력발전소에 도착하였다.

해안에 위치해서 그런지 주변의 수려한 농촌 풍경 및 바닷가와 함께 어우러진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였다.

플라망빌 원자력발전소에는 1300MW급 2기의 경수로가 가동중에 있었으며, 그 옆에 1600MW급 EPR 원자로용 부지 기초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다.

프랑스에는 현재 총 58기의 경수로가 가동중에 있는데 900MW급 34기, 1,300MW급 20기, 그리고 1,450MW급 4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플라망빌 원자력발전소에는 680명의 EDF 정규직원과 2,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부 시설만 둘러보는 일이었지만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방화 및 폭동 사건과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하여 그런지 세밀한 신원 조회 및 휴대폰, 카메라 일체 휴대 금지 등 외부 방문자에 대한 제약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EPR 건설 예정 부지 시찰을 마치고 그 다음 시찰 코스인 Cogema 사 운영하는 La Hague 재처리 시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산업 시찰 참가자들과 함께 프랑스측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시설들이 노르망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그런지 점심 식사는 연어 등 해산물이 제공되었다.

식사 후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연료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재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



플라망빌 원전에서의 한국대표단

은 후 2개조로 나뉘어서 각 공정별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재처리를 위하여 도착된 컨테이너 박스 안의 사용후연료를 담은 용기(cask)들은 방사능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해 원격 조종이나 로봇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해체되어 습식 및 건식 방법으로 재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재처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용후 연료들은 최소 3년간 이곳의 냉각수조(cooled pond)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그 수용량은 약 14,000톤 물량의 규모라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여러 공정별 시설들을 둘러본 후 다시 버스로 웰부르역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44분에 기차를 타고 9시 45분경 밤늦게 파리로 되돌아왔다.

이날의 산업 시찰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행군으로 인하여 피곤함에 지친 모습들이었으나 말로만 듣던 프랑스 주요 시설들을 둘러본 성과로 각자 보람을 느꼈다.

세미나 개황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12월 16일(금) 오전 9시부터 파

리 에펠탑 부근에 소재한 프랑스원자력청(CEA) 본부 건물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한국 참가자들에게 CEA 본부의 주소를 알려주고 모두들 직접 찾아오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혹시 찾는데 애를 먹어서 늦게 올지도 몰라 내심 걱정을 했으나 모두들 회의 시간 전에 현판로비에 집합하였다.

그러나 CEA가 공공 기관이라 출입하는 데 있어 신원을 확인하느라 지체가 되었다.

프랑스 원산 측에서 안내자가 일찍 나와 있지 않아서 직접 경비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회의실로 찾아가려 했으나 경비원은 영어 구사를 잘하지 못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22명이나 되는 많은 한국인들의 방문 문제에 대해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보고 있었다.

입구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반가운 얼굴이 우리 대표단을 맞으려고 나와 있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에너지담당관인 수닐 펠릭스(Sunil Felix) 박사였다.

제1회 한·불 원자력 세미나 구성 때부터 프랑스측 창구였던 그는 이번 세미나 구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다하였으나 설마 이번 세미나에



한국 대표단. 세미나 종료 후 CEA 본부 앞.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올 줄은 생각을 못했었다. 한국에서 그의 행적을 보면 업무로 워낙 바빴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펠릭스 박사의 등장으로 까다로웠던 방문 수속 절차는 간단하게 처리되었고 모두들 5층 회의실로 이동하였다.

회의실로 이동한 후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은 회의실 규모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 및 프랑스 참석자 모두 합해서 50명도 채 못 들어갈 공간이었다.

더군다나 테이블 배치도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마치 토론을 위한 회의실 같았다.

자리에 착석하고 보니 우리나라 참석자들이 거의 전체 좌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측 참석자들은 모두 10명 밖에 안되었고 그중에서 7명은 발표자들이었다. 우리는 7명의 발표자 외에도 질의 및 토론을 위하여 15명이나 참석하였는데 무척 실망스러웠던 순간이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세미나 장소를 CEA 본부로 정하는 바람에 발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의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

우리와 프랑스측과의 한·불 세미나에 대한 사고 방식이 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아마도 세미나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미나 개최한·불 양국 전문가가 발표하고 관심있는 국내 원자력계 인사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프랑스에서는 관련있는 전문가끼리 참여하여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세미나 준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았다.

제1회 한·불 세미나의 경우 원자력연차대회(원산과 학회 공동 주최)와 연계하여 같은 장소(서울 그랜드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하여 프랑스측 참석자 10명 외에 한국측 참가자가 150여명이나 되었으나, 이번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2회 한·불 세미나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비공개 형식으로 준

비하여 프랑스측 참석자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모두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하였으며,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오히려 시간 부족으로 보다 깊이있는 토론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회의 진행은 먼저 개최 세션으로 프랑스측을 대표하여 베르나 로슈(Bernard Roche)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의 개최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방국진 한국원산 상근부회장이 개최 인사를 하였다.

개회 세션 강연으로는 프랑스측에서는 Roche 회장이 「프랑스 전력 시장과 유럽신형경수로」의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하였고, 한국측에서는 이번 한·불 세미나의 기술기획위원회(TPC) 위원장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현수 박사가 「한국의 원자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하였다.

기술 세션은 모두 6개 주제로 한국측과 프랑스측에서 각각 1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제 분야는 원전 운전 경험 사례, 원전 운전과 안전,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 사후연료 관리, 원자력 안전과 규제 분야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관련 주제

별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프랑스측에서는 프라마툼(Framatome-ANP), 프랑스전력공사(EDF), 프랑스 원자력청(CEA), 아레바(AREVA), 프랑스 핵 및 방사능연구소(IRSN)에서 주제별로 발표하였다.

오전 기술 세션을 마치고 CEA 건물 밖 음식점에서 한국 및 프랑스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 하였다.

오찬 중에는 차기 한·불 세미나 개최를 위한 한국원산 및 프랑스원산측간 업무협약이 있었는데 우리측에서는 방국진 상근부회장, 박현수 TPC 위원장,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고 프랑스측에서는 Bernard Roche 프랑스원산 회장과 Sunil Felix 주한 프랑스대사관 에너지담당관 그리고 O. Salhi, Framatome ANP 아시아 마케팅 부사장이 참석하였다.

한·불 양측은 본 세미나를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던 내용을 재확인하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차기 세미나부터는 명칭을 「한·불 원자력산업 연차 세미나 (KAIF-FAF Annual Seminar on Nuclear Industry)」로 확정하였다.

또한 2006년 4월경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와 연계하여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차기 한·불 세미나 일정을 개최 주기를 1년 단위로 하여 2006년 11월경에 개최하는 것

으로 하였으며, 한·불간 좀 더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개최 일정을 2일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개최 일자는 이 시기에 한국에서 주요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될 경우 본 국제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측에서는 세미나 종료 후 프랑스 참석자들이 울진원자력발전소와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등 관심있는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산업 시찰도 1박 2일로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차기 세미나부터는 개최 기간이 세미나 및 산업 시찰 포함하여 총4일간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한·불 세미나 종료 후 한국대표단들은 CEA 건물을 배경으로 현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는데, 프랑스측 참가자들의 말에 의하면 CEA 본부가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기념 촬영 후 우리 대표단들은 파리 시내 한국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마련하는 만찬 모임에 참석하여 상호 소개와 인사를 나눈 후 ENC 2005 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할 소감과 국내 기관간 상호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새

롭고 힘찬 도약의 기회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자력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그간 미국·캐나다·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우리나라의 대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유럽 쪽으로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엔 프랑스에서 개최된 한·불 세미나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지면을 빌어 이번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구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현수 박사님과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펠릭스 박사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이해 가운데 인내하시며 즐겁고 알차게 본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참석자들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 세미나가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주신 각 기관장님들과 그 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ENC 2005

유럽원자력국제대회(ENC)는 유럽원자력학회(ENS)가 미국원자력학회(ANS)와 공동으로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제9회 대회가 200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이유(Versailles) 국제회의 센터(Palais des Congres)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종료 후에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4개 코스의 산업 시찰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번 ENC 대회에는 유럽 17개국, 미주 2개국, 아시아 5개국 등 모두 24개 국가에서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유럽 참가국은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스라엘, 이집트, 스위스,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이며, 미주 참가국은 미국과 캐나다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일본, 중국, 이란, 파키스탄 등이었다.

ENC 2005대회는 Opening Session을 비롯하여 1개 Panel Session이 Plenary 형태로 개최되었고, 20개의 Technical Session이 Parallel 형태로 개최되어 총 150여편이 발표되었으며, Poster Session도 개최되어 1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매일 오전 및 오후 세션에는 Plenary Talk로서 각 세션마다 1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참가자 22명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에서 31명이 참

가하였으며, 발표 논문은 패널 토론 1편, 기술 세션 7편과 포스터세션 5편 등으로서 총 13편이 발표되었다.

또한 ENC 2005 대회에는 원자력산업 전시회도 개최되었는데 유럽 13개국, 미주 2개국, 아시아 1개국 등 총 16개국에서 102개 기관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ENC 대회 장소는 태양왕이라 불리었던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Louis XIV)가 1682년에 파리에서 옮겨온 화려하고 드넓은 베르사이유(Versailles) 궁전 앞 광장과 연결된 도로변 뒤쪽에 위치하였는데 오래된 건물로서 전시 부스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회의장 앞 도로변을 따라 좁고 길게 이어진 공터에 도로를 따라 약 100미터 길이로 급조된 가설 텐트 건물을 설치하였다.

ENC 대회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자력산업 활동이 활발해서 그런지 주로 프랑스에서 개최되어 왔다.

ENC 대회 참가자 등록은 12월 11일(일) 오후 4시부터 바로 이 가설 텐트에서 시작되었으나 환영 리셉션이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많은 참가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몰려 매우 혼잡하였다.

그러나 등록 장소가 가설 건물인데다 안내 표시도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아 거의 대부분 파리 시내에서부터 찾아오는 많은 참가자들이 리셉션 시간에 맞춰 오후 늦게 등록

장소로 찾아오게 되어 저녁 어둠 속에서 드넓은 베르사이유 궁전 앞 광장에서부터 행사 장소를 찾아오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하마터면 행사장소를 찾느라 겨울 찬바람 속에서 꼬박 밤을 새울 뻔 했을 정도이다. 국제 행사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회의장 주변에 온갖 안내 표시를 다 부착하고도 모자라 안내 도우미까지 구간별로 세워두는 등 세밀한 배려를 다하는 우리의 정서하고는 크게 비교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노력에 비해 환영 리셉션은 너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참석 예정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된 탓인지 리셉션 장소는 참가자 수에 비해 너무 좁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을 선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게다가 제공된 음식은 안주용 다과 정도로서 요기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하였다.

필자도 밖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다 어렵게 겨우 내부로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리셉션 행사는 대회장 인사의 간단한 환영사와 함께 30분도 안되어 금세 종료되었다.

그 바람에 비좁은 공간 속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어 한국 참가자들은 별도로 삼삼오오 외부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파리 시내에서부터 어렵게 행사장까지 찾아온 노력이 억울하게 느



ENC 대회 장소 옆 베르사유궁에서. 사진 왼쪽부터 필자, 전풍일 전 IAEA 원자력발전국장, 방국진 한국원산 상근 부회장, 박현수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 TPC 위원장

껴지는 순간이었다.

한국 참가자들과 외부 음식점으로 가려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자 그때에 리셉션에 참석하려고 서둘러 행사장에 막 도착한 다른 한국 참가자 그룹들을 만나니 쓴웃음이 나왔다.

ENC 2005 대회 개최식은 환영 리셉션 행사가 개최된 다음 날인 1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ENC 2005 대회장인 베르트랑 바레(Bertrand Barre) 유럽 원자력학회(ENS) 회장과 공동대회장인 래리 포크(Larry Foulke) (전)미국원자력학회(ANS) 회장(현재 미국 Bechtel Bettis사 원자로 물리부문 고문) 등이 환영 인사를 하였으며, 이어서 피에르 가도니(Pierre Gadonniex) 프랑스전력공사(EDF) 사장이 「원자력 발전 :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기조 강연 후에는 「세계 에너지 정책 :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는데, 루이스 에차베리(Luis E. Echavarri)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사무총장 등 7명의 인사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였다.

한편 개최 세션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공헌을 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는데 피트 도미니치(Pete Domenici)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뉴멕시코주)과 자크스 부샤드

(Jacques Bouchard) 프랑스원자력청장 특별자문위원 등 2명이 프랑스원자력학회(SFEN) 공로상 수상을 하였다.

특히 Domenici 의원은 원자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지해왔으며,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준 유명한 정치가인데 수상할 때 눈시울을 붉히며 매우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매우 이채로웠다.

아마도 원자력 에너지 개발과 이용의 지지를 위해 활동하였던 지난 세월의 노력들에 대한 세계적 인정에 감사해하는 것 같았다.

또한 세계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IN Global)의 공로상 시상도 있었는데, 수상자는 안느 라우버진(Arne Lauvergeon) AREVA 그룹 회장이었다.

개회 세션 종료 후 오후에는 4개 주제의 기술 세션이 Parallel 형식으로 개최되었고, 오후 5시부터는 「원자력계에 있어서 기술적 발전의 전망 : 필요와 기대」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토론자 중에는 최근까지 IAEA 원자력발전국장으로서 활동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전풍일 박사가 수에오 마치(Sueo Machi) 일본 원자력위원(전 일본원자력산업회의의 상무

이사)과 함께 초청 인사로 참여하여 발전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대회 2일째인 13일(화)부터 대회 마지막날인 14일(수)까지는 매일 오전 및 오후 세션에 먼저 Plenary Talk로서 각 세션마다 1개의 주제발표가 있는 후에 각각 4개의 기술세션이 Parallel 형태로 개최되었다.

프랑스측에 의하면 그간 4년마다 개최되어온 ENC 대회는 앞으로는 2년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그간 ENC 대회에는 우리나라의 참여가 낮았었는데 이번에는 제2회 한·불 원자력산업 세미나가 ENC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바람에 ENC 대회 사상 처음으로 30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이렇게 우리 원자력계의 많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전시회에 참가한 기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여러 기관들이 전시회에 참여한 것을 보고 우리도 장기적 안목에서 유럽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앞으로 국내 많은 원자력 기관들의 차기 ENC 대회 및 전시회에서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